

법원, PGA 징계 중단 가처분 기각
LIV골프 3명 페덱스컵 출전 못한다

“페덱스컵 못 나가.”

AP통신에 따르면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이 LIV 골프로 향한 테일러 구치, 허드슨 스와포드(이상 미국), 맷 존스(호주)가 제기한 미국프로골프(PGA)의 징계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는 이미 거액의 돈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후원을 받는 LIV 골프 인비테이션셔널 시리즈(LIV 골프)로 이적한 만큼 이들이 PGA투어 플레이오프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면서 PGA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세 사람은 12일 개막해 3주간 진행되는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회는 페덱스컵 상위 125명에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1차 전인 페덱스 세인트루드 챔피언십은 랭킹 125명까지 출전이 가능하고, 2차전인 BMW 챔피언십은 70명이 출전한다.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은 30명으로 제한된다.

구치, 스와포드, 존스 세 사람은 각각 페덱스컵 랭킹 20위, 67위, 65위로 1차전에 출전할 수 있었으나 PGA투어는 이들의 플레이오프 출전을 막는 한편 이들을 순위에서 삭제했다. 이에 세 사람은 자신들이 자유계약선수(FA)라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이 모나한 PGA투어 커미셔너는 “앞으로 3주 간 우리 선수들과 팬들, 파트너들은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필 미켈슨, 브라이슨 다샘보(이상 미국) 등 LIV 골프로 이적한 11명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PGA투어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유럽연합, 태권도 문화·교육 사업 공식 지원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사업을 공식 지원한다.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벨기에 등 4개국 태권도협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지원하는 문화·교육 분야 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EU의 태권도 사업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문화원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안달루시아) 등 4개국 태권도협회는 2월 ‘골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EU의 지원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EU는 1년간 6만 유로(약 8000만 원)를 지원한다. 호세 루이 페나 에라스무스 지원사업국장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다양성’과 유럽 내 ‘이동 자율성’을 지원하는 EU의 가치에 부합돼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리나 윌리엄스 “카운트다운 시작”…은퇴 암시

미국의 여자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41)가 1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살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정해야 하는 시간이 오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힘들지만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은퇴 의사를 밝혔다. 은퇴 시한을 못박진 않았지만,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29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US오픈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1999년 US오픈을 시작으로 메이저대회 단식에서만 23차례 우승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는 1960~1970년대를 주름잡은 마거릿 코트(호주)의 24회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다.



세리나 윌리엄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늘의 경기	(11일)
프로야구	●KIA-삼성(대구) kt-SSG(인천) LG-한화(대전) 롯데-키움(고척) NC-두산(잠실·이상 18시30분)
골프	●코리안투어 여성종합선수권(사우스링스 영암)
야구	●대통령배전국고교대회(9시·목동구장)
펜싱	●대통령배 전국남녀선수권대회(9시·홍천종합체육관)
테니스	●제3차 한국실업연맹전(영월스포츠포드파크)
하키	●제36회 대통령기 전국대회(9시·제천 청풍명월하키경기장)
근대5종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8시·국군체육부대)
씨름	●제8회 춘천소양강배전국장사대회(9시30분·한림대 레크리에이션센터)
아이스하키	●고교 3차리그(12시·목동아이스링크)
육상	●제51회 추계전국중·고등학교대회(8시30분·보은 공설운동장)

로드FC 최다연승에 도전하는 ‘래퍼 파이터’

8연승 이정현 “지는 걸 생각해보는 적 없어”

김수철·이윤준의 최다 9연승 눈앞
신예 손재민 도전장?...“아직 아기”

ROAD FC 래퍼이자 격투기 선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정현(20·FREE)은 8연승을 달성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정현은 지난달 23일 열린 ‘굽네 로드FC 061’ 대회에서 변칙적 동작을 바탕으로 일본의 베테랑 파이터 아키바 타이키(32·FREE)를 눌렀다. 이날 승리로 그는 8연승을 질주했다.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까닭에 이정현은 과거와 달리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승리를 거두고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이정현은 “이번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기고도 기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어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뭔가 계속 좀 처져있는 느낌이라 힘이 많이 나지 않았다. 그런 게 조금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정현은 이번 승리로 ‘페더급 챔피언’ 김수철, ‘전 밴텀급 챔피언’ 이윤준이 세운 로드FC 최다연승 기록인 9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신기록도 세울 수 있다. 지는 걸 생각해보는 적 없어서 (김)수철이 형, (이)윤준이 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드러냈다.

8연승을 달성한 이정현에게는 여러 명에게서 도전장이 날아들고 있다. 최근 떠



‘래퍼 파이터’ 이정현(왼쪽)은 로드FC 최다연승 신기록에 도전 중이다. 거침없이 8연승을 달려온 그는 “지는 걸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며 로드FC를 대표하는 최강 파이터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르는 신예 손재민(20·팀 에이스)을 비롯한 플라이급의 강자들이 이정현과 일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정현은 “손재민은 나랑 싸우기에는 솔직히 레벨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인지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직 나한테 안 된다. 5연승까지만 해도 붙여줄 수 있는데, 아직은 너무

아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현은 로드FC 센트럴리그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파이터다.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아올린 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최근 많은 격투기 팬들의 공통 관심사다.

이정현은 “센트럴리그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코멘트 이벤트까지 경험해봤다. 로드FC에서 가장 이슈를 만드는 선수가 돼 매 순간 놀라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자만하지 않는 큰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육상스타들 세계선수권 기세 이을까

남녀 합쳐 15개 세부종목서 자웅
외신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주목”

쟁쟁한 스타들이 남녀 합쳐 15개 세부종목에서 자웅을 겨룬다. 올 시즌 10번째 다이아몬드리그육상대회가 11일(한국시간) 개막하는 가운데, 이들은 지난달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2022세계선수권대회의 호성적을 이어가려고 한다.

10일 세계육상연맹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총 15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이 중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수는 페이스 킵에곤(여자 1500m), 엠마누엘 코릴(남자 800m·이상 케냐), 켈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여자 100m), 세리카 잭슨(여

자 200m·이상 자메이카), 그랜트 홀로웨이(남자 110m 허들), 마이클 노먼(남자 400m·이상 미국), 올리마 로하스(여자 세단뛰기·베네수엘라), 무타즈 에사 바심(남자 높이뛰기·카타르) 등 10여 명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단연 로하스다. 3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15m74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했고, 올 시즌 4연속 우승을 기록 중이다. 이번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서 5연속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년 출산 후 이듬해 트랙으로 돌아와 선전하고 있는 프리에저-프라이스의 역주도 관심을 모은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m 결선에서 10초67로 대회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어깨 부상과 올해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딛고 세계선수권대회(66m91)와 영연방대회(64m43)를 잇달아 제패한 켈시-리 바버(여자 창던지기·호주)의 역투에도 눈길이 쏠린다.

외신 인사이드 더 게임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8위에 그친 위클리프 킨야말(케냐)이 영연방대회 남자 800m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종목별로 대항마가 많다. 이번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1인자 바심과 간격을 좁힌 남자 높이뛰기, 20세 이하 최강자 에르완 코나테와 사샤 조야(이상 프랑스)가 참가를 선언한 남자 멀리뛰기와 남자 110m 허들 등은 마지막까지 우승자를 점치기 힘든 전장”이라고 분석했다.

권재민 기자 jmr1220@donga.com

삼성생명, 종별배드민턴선수권 女 단체전 제패 ‘적수가 없네’

3월 코리아리그·7월 협회장기 이어 우승 행진

전통의 강호는 달라도 다르다.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여자팀은 올해 3월 DB그룹 코리아리그 초대 챔피언 등극을 시작으로 7월 협회장기대회, 8월 종별선수권대회에서 잇달아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국내 최강의 입지를 다졌다.

충남 당진에서 열리고 있는 종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선 전북은 행을 3-0으로 완파하고 2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3위 안세영, 19위 김가은을 필두로 이유림, 김혜정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이 국제대회를 병행하느라 체력부담이 크지만, 복식의 이연우-김유정과 최고참 김나영 등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하며 팀의 영광에 앞장서고 있다.

11일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단식 결승에선 안세영과 김가은의 기본 좋은 ‘집안싸움’이 예고돼 있다. 복식의 이유림-김혜정도 김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여자팀은 충남 당진에서 열리고 있는 종별선수권대회 단체전을 비롯해 올해 3개 대회를 연속으로 석권하며 국내 최강다운 위용을 뽐내고 있다.

소영-채유정(인천국제공항)과 이날 결승전을 치르게 돼 전관왕 달성도 가능하다.

김영이 삼성생명 감독은 10일 스포츠동

아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해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협회장기를 치른 후 2주 만에 종별선수권을

치르게 돼 긴장되기도 했지만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현역시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금·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 감독은 1996년 삼성전기(현 삼성생명)의 창단 멤버로 합류했다. 이어 2006년부터 코치 생활을 시작해 2011년 기업 구단 최초의 여자 감독으로 취임하며 구단의 역사로 자리매김했다.

삼성생명과 남다른 인연에 대해 김 감독은 “지난 30년간 많은 우승과 함께 좋은 추억이 있는 감사한 팀”이라며 “2년 전 삼성생명으로 팀이 이관된 후 체계가 더 잘 잡혔고, 동호인 대상 홍보 기회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회 호성적에 대해선 “최고참 (김)나영이와 고졸 1년차 (김)유정이가 각자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해줘 고맙다. 이번 대회에서 전관왕을 이루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권재민 기자